



전주매일

비수리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지난달 28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교육행정협의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이 인건에 대한 협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 체류형 관광지로 변신 중

작년 방문객 9756만명 전년보다 15.3% 증가

전북 방문 이유는 음식·숙박·문화관광 순 도, 세대별 맞춤형 관광정책 추진 생태계 회복

최근 발표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전북을 찾은 방문객수는 9,756만명으로 전년 대비 1,291만명(15.3%) 증가했다. 평균 체류시간은 445분, 전국 3위로 전국 평균 384분에 비해 61분이 길다. 전체 방문객 중 숙박 방문객은 2,406만명(24.6%)으로 나타나 전북도가 체류형 관광지로 점차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 자료에 따르면 전북을 방문한 주요요인은 음식, 숙박, 문화관광 순이며, 전북 관광 주요소비자는 40~50대가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 점진적으로 통계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더불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15세 이상 국민들은 94.2%가 국내여행 경험이 있으며, 국내여행 1인의 하루 지출액은 12만4,000원으로, 동반자 수가 3.5명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43만4,000원을 지출하고 있다. 여행정보 획득경로는 방문 경험과 주변 추천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전북도는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통계를 바탕으로 여행 방문지 선택이유, 여행정보 획득경로, 관광 주요 소비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이에 맞는 맞춤형 대응전략을 추진한다.

관광 주요 소비자가 40~50대 인 것을 감안해, 젊은층을 대변하는 MZ 세대를 위한 핫플레이스 개발과 유명 영화촬영지와 영화의 거리를 거닐며 영화 속 주인공이 되는 이색체험 상품 등 전세대를 아우르는 특색있는 마케팅 활동, 관광지 개발, 다양한 축제 등을 발굴 운영 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와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음식업 등 관계자의 친절과 철저한 위생관리에도 민전을 기할 생각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14일 K-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관광산업 분야는 민선 8기 관광민족도 1위, 관광소비 1.5배, 숙박일수 2일의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지역관광수요에 맞는 신(新)성장 관광콘텐츠인 미식, 위케이션, 생활관광, 웰니스, 아인펜 등 매력적인 관광정책으로 관광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국내외 관광객의 전북방문을 유인할 계획이다.

전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변화하는 관광 경향에 맞춰 관광정책을 발굴·추진해 도내 관광산업 생태계를 회복하고,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전북만의 매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유·보 통합' 선도모델 구축 합의

(유아교육·보육 통합)

2023년 제1회 교육행정협의회

김관영 도지사·서거석 교육감, 현안 협력 합의문 서명

유치원 급식비·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 격차해소 위한

차액분 지원 위해 전북도·교육청 공동 재원 부담기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도내 영유아의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선도모델 구축에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과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전북교육청에서 양 기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회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교육·학예에 관해 시급한 안건을 논의하고 전북형 유보통합 선도모델 구축 등 주요 교육 현안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안건은 △도교육청 전입금 218억원 2023년 제1회 추경 편성 △전북형 유보통합 선도모델 구축 △농촌유학 경비 지원 대상 확대 △청소년 성장지원 협업체계 구축 △운영 △전라북도립여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재원 분담 △농산 어촌 기숙형고교 급식비 지원 재원

분담 등 6건이다. 특히 유보통합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유치원 급식비 단가(3,500원)와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2,850원) 격차 해소를 위한 차액분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과 도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도교육청과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발굴해 선도적으로 격차를 해소하면서 성공적인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농촌유학 경비 지원에 대해서

는 당해 연도 농촌유학 모집인원에 한정했던 것을 기존 농촌유학센터 유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사업 발굴에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주차장, 체육시설 등 학교시설 개방 △직업계고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설명회 개최 △농촌체험학습 확대 △청소년 스마트 체험 활성화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 등에 대해서도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와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오늘 전북형 유보통합 기틀을 마련한 성취를 바탕으로 우리 전북을 '유아교육 공교육화 선도 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전북'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다양한 교육 현안에 도정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는 데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미래를 선도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청과 도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교육행정협의회는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의장으로 참여해 전북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가 지방 중소도시로는 최초로 2023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강점을 내세워 대도시와 겨뤄 지방 중소도시 최초로 대규모 산업박람회 유치를 확정했다.

지난달 28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개최지로 전북도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됐다.

익산시,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유치 확정

지방 중소도시로서는 전국 첫 사례... 전북도와 공동 개최

그동안 대도시에서만 열리던 박람회가 지방 중소도시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0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연계해 문화축제와 결합한 산업박람회를 선보일 계획이다.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해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컨퍼런스, 컨설팅, 세미나 등을 통해 도시재생 산업의 전반적인 성과와 미래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다.

민간기업 7개 이상, 약 5만명 이상 관람객이 온·오프라인 참가가 예상되어 익산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익산시는 국토부에서 공모한 도시재생사업에 2017년 중앙동이 최초 선정된 이후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해 1~2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중앙동 송학동 인화동, 남동동 금마면, 합일읍 도시재생사업까지 총 6개소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앙동의 경우 청년시청, 글로벌문화관, 음식식품교육문화원 등 청년창업플랫폼과 시민 참여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거점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정현을 시장은 "올해 대한민국 도시·공간혁신 산업박람회를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어 기쁘다"

며 "산업박람회 개최와 2023 익산 방문의 해가 맞물려 시너지 효과로 익산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본사 인사

▲김옥기
임 : 부장
명 : 편집국 사회부

(5월 1일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